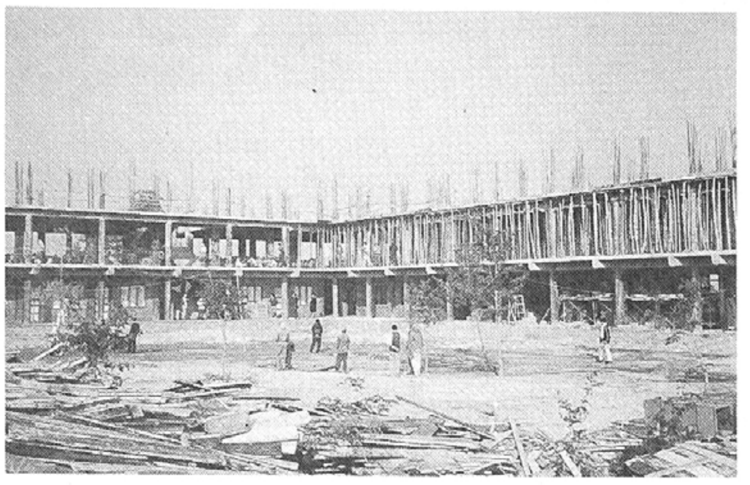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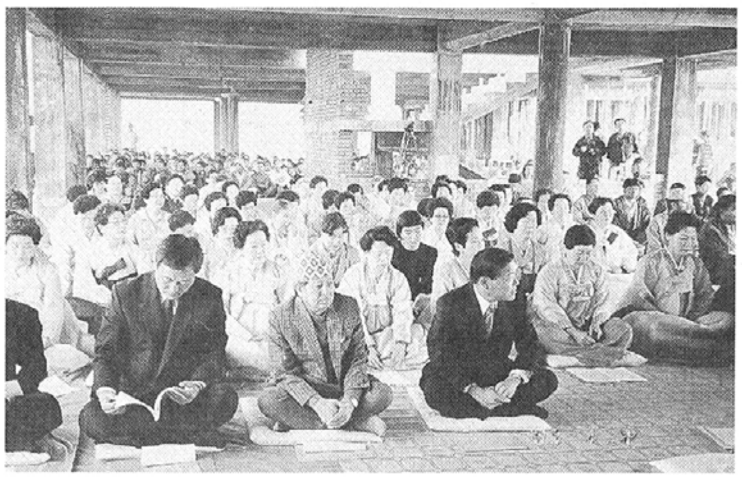


◇지난 6일 기공식을 가진 대성 석가사 일반 요사채 1동은 이미 3층규모(7백80평)의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내년 3월 이 요사채가 완공되면 룸비니 참배객 2백여명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한다.



◇1천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기공식 법회에는 10년간 룸비니개발위원회장직을 맡았던 록다산 고문(사진 앞줄 우측 두번째), 성정경 주 네팔 한국대사(우측 맨끝), 코네코 정현일사장(우측 세번째) 등이 자리를 빛냈다.

룸비니동산에 대성 석가사 기공

인도 속의 한국불교

부처님 오신 땅서 한국사찰 대하니 '감격'

1천여명 참석…3700평 규모 2000년 완공

◇주지 법신스님

부처님께서 오신땅 성지 룸비니에 세워지는 한국사찰 대성 석가사(大聖 釋迦寺·주지 法信) 요사채 기공식이 거행된 12월 6일. 행사에 참석차 먼 길을 달려간 한국 불자들과(서울 대각사·대성사, 부산 중생사, 경주 천룡사) 일간지 문화부 기자단 등 1백여명은 새벽안개를 가르며 마야당과 아쇼카 석주가 있는 룸비니 동산을 참배했다. 아쉽게도 사진을 통해 눈에 익혀 놓았던 마야당은 전일본불교회에 의해 보수중이어서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부처님 탄생자리가 아쇼카 석주에서 오른쪽으로 20m지점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일본의 고고학자 우애사씨(전일본불교회 주임)에 의해 밝혀졌다고 양진교법사가 전했다.

국제사원구역으로 룸비니 동산에서 1Km 지점에 건립되는 대성 석가사 기공식 법회는 오전 9시에 대각사 총무 靑靑스님의 사회로 시작됐다. 成正慶 주네팔한국대사, 록다산 네팔 룸비니개발위원회 고문(전 네팔문화부장관), 정현일 코네코사장, 룸비니 구역내 네팔, 베트남, 일본, 미얀마 스님 등과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화창한 날씨에 지역 축제일을 방불케한 이날 기공식은 이미 3층 규모로 골조공사가 끝난 일반요사채 2층 임시법당에서 열렸다.

법회는 법신스님의 경과보고, 도문스님의 법어, 成대사, 록다산, 정현일사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은사 도문스님의 명을 받아 지난 4월 룸비니에 도착, 현지인 기술자 2백50명을 고용하여 직접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법신스님은 지난 6개월이 감격스러운듯 떨리는 음성으로 경과보고를 했다. 법신스님은 "내년 3월까지 현재의 7백80평 일반 요사채 1동을 마무리하고 이어 2동과 1천평 규모의 법당, 그리고 승려요사채 2개동(1천2백평) 종각 등 총 3천7백여평의 당우를 차례로 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道文스님(대각사 주지·대성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인도의 불교 4대성지를 잘 가꾸라' 고한 용성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면서 "대성 석가사는 한국불자의 귀의처로 세계 속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을 다짐했다.

10년간 룸비니 개발위원회 회장직을 맡았던 록다산 고문은 "대성 석가사는 먼저 시작한 다른나라 사찰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비렌드라 네팔국왕도 5일 도문스님을 접견,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대성 석가사는 현지에서 구운 한국식 기와로 지붕을 얹어 전통 회랑식의 요사가 마무리되면 룸비니 참배객들에게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며 도서관도 개설한다. 일반요사 1동은 한번에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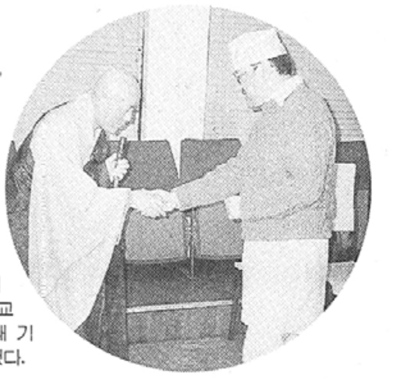
대성 석가사는 현재 확보된 8천평 부지에 5년여에 걸쳐 1차 불사를 끝내면 5천여평을 추가로 확보해 선원 강원 율원 한국의 집 등을 건립, 국제사원구역에서 가장 큰 종합 대가람을 조성할 계획이다.

룸비니 국제사원구역은 총 2백40만평. 전체 42개 구역중 현재 22개가 불교국에 배정돼 사찰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성 석가사가 가장 시선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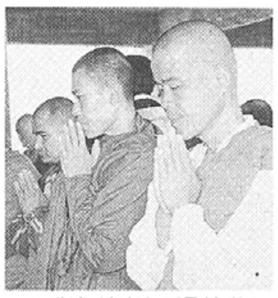
지역주민들 중에는 이미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석가사를 '우리 절'로 생각하며 절 일을 돌보는 이들도 많다.

한국불교가 룸비니 동산에서 꽃피울 날을 바라면서 도문스님 선창으로 만세를 부르며 기공법회는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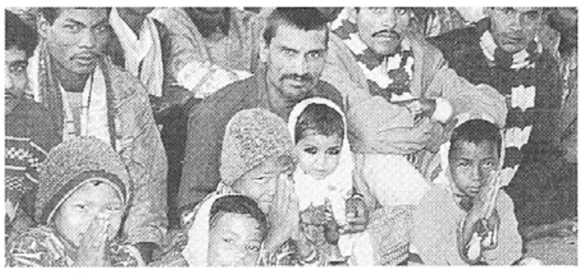
네팔=최정희 편집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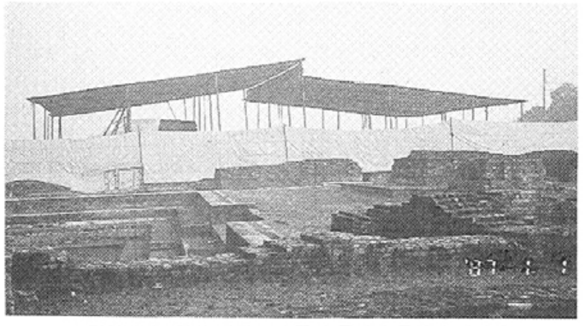
◇비렌드라 네팔 국왕은 5일 도문스님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국왕은 룸비니 동산에 석가사를 세워 양국 불교 교류와 우호를 다지게 돼 기쁘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성 석가사 기공식에는 룸비니 구역내 네팔, 베트남, 일본, 미얀마 등 외국인 스님들도 하객으로 참석했다.



◇현지 주민 3백여명이 참석한 대성 석가사 기공식 법회는 마치 마을축제와 같았다.



◇전일본불교회에 의해 보수중인 룸비니 동산의 마야당.

4성지에 울리는 한국 목탁소리

석가사·고려사·녹야원·대한사등 속속 '자태'

한국불교가 부처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인도 4성지에서 전법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6일 기공식을 마친 룸비니의 대성 석가사를 비롯 보드가야의 고려사, 사르나트의 녹야원, 쿠시나가라의 대한사가 인도 속에 건립되고 있는 한국 절이다.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 대탑에서 멀지않은 곳에 자리한 고려사(주지 月牛)는 92년 2천1백평의 부지를 확보, 현재 임시법당과 5개의 방을 갖춘 요사채를 갖추었다. 고려사는 4천평의 대지를 더 마련하기 위해 인도정부에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앞으로 큰법당과 대형 건물을 세울 예정이다.

사르나트의 한국 절 녹야원은 승가대를 졸업하고 90년 이곳 산스크리트어대학에 유학온 道雄스님(40)에 의해 불사가 시작됐다. 93년 2회에 걸쳐 2천1백평의 부지를 구입한 스님은 지난 2월부터 2백50평 규모의 요사채 '겸익루'를 짓고 있다. 96년 2월 완공한다. 내년에 법당과 월정사 탑형의 대탑을 세울 계획이다.

도웅스님은 법적으로 포교가 금지돼 있으나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타종교인들의 불교개종의식에 참여할 정도다.

쿠시나가라의 대한사는 주지 성관스님이 1천8백평 대지에 45평 규모의 요사채 1동을 94년 완공했다. 역시 가람불사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어렵기만 하다.

룸비니를 제외한 3대성지의 한국사찰은 90년 결성된 在印 한국불교협회(회장 현동화)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조계종에 등록되어 있다.

특히 서울의 구룡사 정우스님은 인도의 한국사찰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불사를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도 금년에 5백만원씩 지원했다.

이 절들은 매년 5천명이 넘는 한국의 성지순례자들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면서 한국불교의 국제화에 기여할 뜻을 세우고 있다.

◇보드가야 대탑 인근에 자리한 고려사 전경(원내는 주지 월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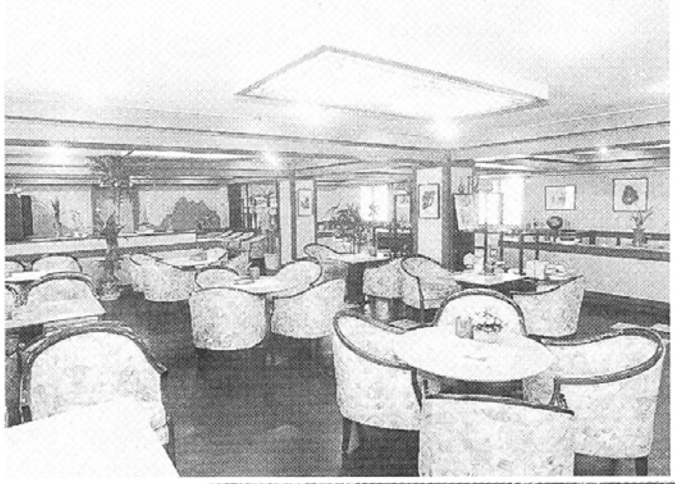
◇96년 2월에 완공될 사르나트 녹야원의 요사채 겸익루(원내는 주지 도웅스님).

◇94년에 세운 쿠시나가라의 대한사(원내는 주지 성관스님).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녹수 청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 청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 청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립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

다원 녹수청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 736-3782 •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59, 84, 159, 331, 588-2